

# “짠물피해” 섬진강 대책 세워달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이 줄어들자 어업 피해를 입은 광양만관 어민들이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특히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조사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자 수공 분사를 접단 항의방문하는 등 과정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양만관 어업피해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지난 2004년부터 그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어업 피해조사 협상을 벌인 결과 용역을 통해 조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에도 수공족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엉뚱한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4월 어민대책위와 협상 끝에 어업피해 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추진이 진행해야 하지만 어업피해 대상을 축소 은폐해 수공이 면죄부를 받으려는 의도로 과업지시서 안건을 만들어 대책위에 수용할 것을 요구한

## 광양만관 어민들 “주암댐 방류량 줄어 어종 고갈”

## 생존권 투쟁 나서…수자원공 “피해조사 용역 추진”

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양만관 어업종사자 3천700여 회원들은 지난달 24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해 일부 집행부 회원이 삐발까지 감행하며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을 선언했다.

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91년부터 주암댐을 관리하면서 섬진강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방류수가 줄어 강과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 산란장이 사라지면서 재첩·민물고기 등의 씨가 말라 어민회원과 맨손어업 종사자들의 어업활동을 불가능케 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공이 광양 디ップ취수장의 가동으로 바다 염도가 높아지면서 지

하수의 염도까지 높아져 섬진강 주변 일부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면 피해어민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해 양생태조사, 생물조사 등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의 중재와 수공 관리규정, 관련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디암 취수장에서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량 912여 만t(20억 원), 용강 정수장에서 560여 만t(12억 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광양제철은 수어从中에서 연간 7천여 만t(26억 원)을 공업용수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천, 동천, 서천 어민들의 생계를 생각해 끝까지 피해조사에 착수토록 하겠다”며 “수자원공사는 생태계 파괴 원인 제공을 인정하고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시급한 조사를 촉구했다.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섬진강 및 주암댐은 현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설정·협의된 하천유지수 100%를 정상 방류하고 있다”며 “일부 어민들의 요구가 지나친 점이 있지만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광양시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디암 취수장에서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량 912여 만t(20억 원), 용강 정수장에서 560여 만t(12억 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광양제철은 수어从中에서 연간 7천여 만t(26억 원)을 공업용수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추리 꽃길은 미소길

구례군은 최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서기동 군수를 비롯한 박민순 군의회의장,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추리 꽃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시천 체육공원을 출발해 정장교~서시천 제방을 따라 3.5km를 걸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중국으로 발 넓히는 광양시

### 4개 市 방문 교류 협력

광양시가 중국과 새로운 교류의 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광양시 국제교류 실무대표단(황만 통상과장 외 2명)은 지난달 말 중국 선전·롄원강·난징·선양 등 4개 시를 방문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난징시는 상하이 등 중국 항만도시 30%를 공급하고 있는 양쯔강 주변 산업·물류 중심지이고,

항만·경제 등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한 실무협의, 상공인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롄원강·난징시와도 우호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선양시와는 물류·기업체 관계자간 국제교류사업, 동북아 물류 글로벌트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난징시는 상하이 항만도시 30%를 공급하고 있는 양쯔강 주변 산업·물류 중심지이고,

렌원강시는 현대형만공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며 “두 도시와의 교류추진은 광양항 활성화와 광양시의 세계화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광양시는 중국과 1개의 자매 도시, 4개의 우호도시, 1개의 의향도시 등 모두 6개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 여수산단 진입로 2012년 3월 임시개통

### 현 공정률 19.5%…여수엑스포 개막전때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을 잇는 여수산단 진입도로가 오는 2012년 3월 임시개통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19.5%인 여수산단 진입도로가 여수엑스포 개막 전인 2012년 3월 임시 개통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광양항과 여수산단을 광양만 바다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길이 8.55km 인 이 도로는 대부분 사장교와 현수교 등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천 656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이 진입도로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설계와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남해안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녹색 환경도로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광양항과 여수 국가산단을 빠르게 연결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광양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175m, 1천115억 원) 등 4구간 구성돼 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수산단과 광양항 거리가 60km에서 10km로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8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든다.

전남도는 이 진입도로를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설계와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남해안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녹색 환경도로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광양항과 여수 국가산단을 빠르게 연결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광양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 광양항, 미주 항로 추가 개설

광양항에 한진해운 미주 정기항로가 7일부터 추가로 개설됐다.

이번에 개설된 CAX(China America Express) 서비스는 상하이~광양~부산~미국 롱비치~오클랜드 등에 기항하는 정기항로로 주중에 기항하며, 그동안 주중에 운항되던 PAX(Pacific Express) 서비스는 주말로 변경된다.

CAX 서비스 개설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이 대형 화주와 협력해 선사를 유치한 것으로, 한진해운의 선대개편 정보를 사전 입수해 광양항에 주중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한 성과다.

대형화주 관계자는 “공급 납기를 맞출 수 있게 돼 광양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의 민족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항로 개설을 반겼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 선박사고 주원인은 ‘부주의’

### 여수해경 분석

해상 선박사고의 주원인이 기상보다는 운항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선박은 총 46척으로 집계됐고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가 전체의 35%(16척)로 가장 많았다.

흔히 주된 사고 원인으로 생각되는 기상악화는 정비불량 30%

(14척)보다 적은 9%(4척)에 불과했으며 화기취급 부주의가 6%(3척)로 조사됐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이 61% (28척)로 가장 많았고 낚시어선 17%(8척), 화물선 4%(2척), 예인선 2%(1척), 기타 15%(7척)로 집계됐다.

또 사고 유형은 기관고장이 22%(10척)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돌 22%(10척), 침수 19%(9척), 추진기 장애 17%(8척), 화재 11%(5척), 기타 9%(4척) 등 순이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 헬기 동원 남해안 적조 예찰 강화

여수해경이 헬기 등을 이용해 유해성 적조(赤潮) 예찰 지원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적조가 발생될 경우 국립 수산과학원과 해당 시·군에 신속히 전파하고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동원해 시료 채취와 황토살포 작업 지원을 통해 최소화될 때까지 유해성 적조의 조기 발견과 확산상태 확인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예찰활

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적조가 발생될 경우 국립 수산과학원과 해당 시·군에 신속히 전파하고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동원해 시료 채취와 황토살포 작업 지원을 통해 최소화될 때까지 유해성 적조의 조기 발견과 확산상태 확인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예찰활

## ‘NEIS’ 고흥여중을 보면 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자녀 학교생활 정보 제공…학부모 98% 인증

### 2년째 시범연구학교 운영

고흥여자중학교(교장 이복형)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흥여중은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된 ‘내자녀 바로 알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www.nais.go.kr)를 이용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정보 등을 전해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다.

특히 학부모 상담서비스를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 고 있어 자녀교육 상담은 물론 학

부모와 연계된 체계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체 학부모 356명 가운데 348명 (98%)이 인증을 받아 시스템에 접속·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학습상담과 진로지도상담 활동을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학부모 연찬회를 개최했다.〈사진〉

한편 NEIS는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간에 교육 행정부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진기자 gjju@

여수국립여자중학교(교장 김기숙)는

‘나이스’를 활용해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이다.

나이스는 학부모에게 학교생활 정보를 제공하는